

“오랜 제자”

■ 이종윤 원로목사

오래된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니듯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니다. 교회 안에는 새 제자들이 증가되어야 하듯 오랜 제자의 공헌도 무시해서는 안된다. 오랜 제자의 연단 받은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준다. 금도 연단을 거듭해야 순금이 되듯 신앙도 연단을 받은 신앙이라야 본받고 따를만하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이 열심이 있다고 직분자 삼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산전수전 다 겪고 쓴맛 단맛 다 보아가며 오랫동안 같고 닮인 연단 받은 신앙은 많은 사람의 사표가 될 수 있다.

오랜 제자의 지조있는 생활은 후학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싹은 텃지만 이어 시들고 마는 들쭉밭의 교인과 꽤 버티어 보지만 종내 질식당하고 마는 가시떨기의 구도자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얻은 믿음이지만 환난과 핍박과 고난 앞에서 짓밟혀 머리를 숙인 길가밭의 명색만 가진 유명론자들 틈바구니에서 시종여일 곳곳하게 지조를 지키며 내려오는 오랜 제자는 보는 이들로 큰 교훈을 받게 한다.

박해가 심하거나 배신자가 득실거리는 곳에서는 오랜 제자가 더욱 그림자. 모세가 없으면 죽을 줄 알고 모세를 존경하고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면대하고 있는 동안 그들 눈에 보이지 않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케 해달라고 아우성 친 백성들의 모습은 인간의 죄성과 나약함의 실체를 보여준 비극이었다. 그때도 오랜 제자 아론이 중심을 잡고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약속의 땅으로 행군은 점점 멀어져 갔다.

오랜 제자의 풍부한 경험은 새 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경험주의 철학자 데이빗 흄(David Hume)은 경험에서만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까지 한다. 경험이 선생이라는 말도 있다. 해와 달이 바뀌는 동안에 하나씩 돌씩 쌓여지는 것이 경험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지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길에 경험 많은 오랜 제자 나손을 데리고 갔다.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혜와 지조도 있고 연단 받은 제자가 동행할 것을 원한 것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의 집에 유하기 위해서다. 남에게 폐 끼치기를 싫어하는 바울은 오랜 제자에게만은 예외였다. 그만큼 신임하고 가까운 처지가 되었다는 뜻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에 대한 서글픈 현상들을 본다. 그 하나는 오랜 제자들이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있는 일이다. 르호보암 왕이 경험 많은 오랜 대신들의 충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열지파를 잃어버린 사례를 우리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새 제자의 의견이 참신하고 박력있어 좋고, 오랜 제자의 의견은 지체롭고 원숙해서 좋은 것이다.

뒷면으로 계속 ➡

앞면에서 계속

또 다른 하나는 일부이지만 오랜 제자의 탈선 행위다. 교회 안에서 가시 노릇하고 반질반질 멍들이 노릇하는 자들이 이들과, 전통과 선례를 고집하고 교역자를 괴롭히는 자들의 대부분이 이들이라는 것이다. 새 제자에게 목사가 쫓겨났다는 말은 별로 듣지 못했다. 오랜 경륜으로 새 제자의 사표가 되어야 할 분들이 도리어 38년 된 베데스다의 만성 의욕 상실증에 걸린 병자처럼 교회 안에서 썩은 냄새만 풍겨서는 안된다. 오랜 제자는 항상 새 제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오랜 화근이 되기 쉽다. 주여, 구브로사람 나손같은 오랜 제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옵니다.

-한국장로신문 [제 1288호] 2011년 8월 27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acher : Rev. Euichang Kim, PhD]
	[Presider : Deacon Kichan Yoo]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Deacon Ki Chan Yoo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1 Cor 7:1-7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Rev. Euichang Kim
Anthem	Congregation
Sermon	“As a Concession” Rev. Euichang Kim
* Hymn	488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p>우리의 비전 (vision)</p>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교회 QR코드</p>
-------------------------------	--	--

<p>부 목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p> <p>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p> <p>선교사 전광혜(사야사),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경옥, 아사,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핀),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미디가스 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허창범(한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타이(노동자), 필리핀, 프란소프, 수레시, 수바식, 이경연, 일로프, 비사누(뽀도, 보디소프, 린통, 수린존(방글라데시), 박영성(총회), 김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길(선교)</p>	<p>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p>
--	--------------------------------

	<p>천국시던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이종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www.iseoulchurch.or.kr/</p>

“은혜 아래 있는 자유인”

■ 갈 4:31-5:1

교회는 법치주의를 지지하고 법치주의를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부에 있는 악한 것과 우리 안에 거하는 죄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발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 사회에 있어서 법치주의가 최선입니까? 기독교인은 여기에 머무르면 안됩니다. 기독교에서는 법치주의나 율법주의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노예와 자유인을 대조합니다. 이 대조는 ‘율법주의’와 ‘복음’의 대조를 의미합니다. 율법주의의 강령은 ‘행하라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율법을 지켜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인간에게 선행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묶여 있는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1. 일이 아닌 봉사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롬 4:4)
 ‘일하는 자’ 즉 ‘선행을 하는 자’ 혹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자신이 한 선행에 대해 삯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선행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하고나서 보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넘치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행은 일이 아니라 봉사인 것입니다. 행위와 일은 보상을 요구하지만 봉사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노예를 만들어내고, 복음은 자유인을 만들어내어 자물에 의해 봉사로 선행을 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2. 루터의 자유인의 개념

바울이 갈라디아서 쓴 이래 이런 자유인의 개념을 가장 먼저 잘 이해한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95개조 반박문을 쓴 지 3년 후인 1520년에 쓴 ‘기독교인의 자유’ 첫 머리에 그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인의 원리와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서 지키는 봉사의 원리’라는 두 개의 명제를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를 명쾌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사람들은 가톨릭교회와 개신교 교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후 성경을 직접 읽고 개인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 근대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그 결과 자유인의 제도인 정치 제도와 경제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3. 대한민국 기독교의 사명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용서받은 죄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사람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결함투성이의 죄인으로 인식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은 자기 외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자신과 남을 모두 죄인으로 인식할 때 인간은 비로소 남을 정죄하고, 자신을 심판자로 착각하는 불완전한 사고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자유인으로서, 독립적 개인으로서, 정치와 경제, 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인간의 존엄성, 자유, 인간의 권리를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받아들이므로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된 후 북한 주민들을 용서와 은총 아래 있는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노예가 아닌 봉사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김철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최광성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오치열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인 도 자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25:14-15...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3(2).....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17(시 29)...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66(20)...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17:11-18...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내게 감사 할 이유있네!”... 안주훈 목사
 * 찬 송 Hymn429(489)...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장석남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출 15:1-2 인 도 자
 찬 송 390(444) 다 함 께
 기 도 김승록 집사
 성 경 ...창 3:19, 롬 12:1-3, 엡 4:12 ... 인 도 자
 흥해작전 승전보고 말 은 이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변화를 받으십시오“ ... 설 교 자
 (Be Ye Transformed)

* 찬 송 413(470)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허 숙 권사
 성 경 삼하 3:2-21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 설 교 자
 설 교 장석남 목사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장석남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부	가브리엘	백경화	박준호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호주	박수강	윤주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부								
수요 II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 ◆ 모임
 1. 권사회 월례회 / 30일(주) 오후 3시30분 101호
- ◆ 알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이경진(성형외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김동건(치과), 오병호(피부과) 입니다.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2728-5939
 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14. 맥추감사절 / 7월 첫주일(7일)은 맥추감사주일로,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5.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해 주신 안주훈 목사(서울장신대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6. 안주훈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미국 맥코믹 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D.Min) 의귀교회, 원광반석교회, 서귀포교회, 중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서울장신대 총장 한국신학대학 총장 협의회 회장 경인지역 총장 협의회 부회장 ◆ 장례 1. 故 임자현 성도(10교구 이미영 집사의 모친, 김금재 집사의 장모) / 26일(수) 별세, 28일(금) 천국환송예배 2. 故 정시지 집사(8교구 한춘홍 권사의 모친, 서문석 장로의 장모) / 28일(금) 별세, 7월 1일(월) 발인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97명	238명	205명	1,340명	134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6/23)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6월 23일	헌 금	26,757,100	
	말씀봉사비		18,010,000
	찬양대사례,운영비		13,444,000
	급 여		33,084,000
	교회학교교육비		10,270,000
	잡 비		10,082,900
	특별예배비		3,808,000
	선 교 비		31,576,700
	행 사 비		62,000
	구 제 비		400,000
	비전2020		5,880,000
	출 판 비		250,000
	지원교회		3,000,000
	인 건 비		6,122,600
	복리후생비		83,000
	통 신 비		531,720
	수도광열비		10,290
	차량유지비		418,740
	사무용품비		17,440
	소모품비		1,477,470
	서 적 비		1,225,000
	수선유지비		899,300
	식당운영비		1,100,240
	합 계	26,757,100	141,753,400